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

주민에게 희망주는 ‘좋은정치’ 펼쳐야



이 강 영

남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우리 남구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8대 남구의회는 지난 7월 2일 구민의 열망을 담아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4명 의원 모두는 민의를 폭 넓게 반영하려는 많은 시도와 진지한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또한, 동반자적 협력관계인 집행부와 남구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일부 조례안이 장기 표류하는 등 의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은 정치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과감히 극복해야 합니다. 14명 의원 모두, 하나로 뭉클뭉클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구민의 불편함을 잘 살펴드리고,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정치’를 펼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갑니다. 이제, 그 동안 쌓인 갈등과 반목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남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동안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에 소홀하면 상생과 협치는 결단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반성과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저물어가는 무술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남구를

〈2차 본회의〉



서성부 의원

(대면1·4·6)

본 의원은 장애인에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바로 <지체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는 물론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해 중 숫자 ‘1’이 가장 많은 날짜인 11월 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개혁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소외된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에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다정한 사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황제에 반영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확충을 제안합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남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3000여명에 이르러 있습니다. 반면 복지관 주차장은 고작 11대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는데 봉사자차량이 주차단속에 많이 걸리면서 복지관에 봉사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마저 있습니다. 대책도 없는 주차단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의 제한적 운영, 열악한 버스정류장과 도로환경 탓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저상버스, 교육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황폐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부족, 이러한 다중시설 주변 건물록 순회체계의 문제점 등, 우리 주변의 현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가 수많은 장애인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노력이 주차단속에 많이 걸리면서 복지관이 지기 위해 장애인 시설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다각적인 환경조사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는 장애인 아니면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서 과연 우리 남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신에 맞게 장애인 인권에 합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등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어 현실적으로 복개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용역이 실시되어서야 주장하면서 현재의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중요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인지, 공사가행이 급급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의 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분한 예산과 사전조사 없이 확보된 국비의 활용이 주민의견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에 방음벽을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의 시행으로 안도하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심적 상실감을 줄이고 오염원을 조속이나마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문현터널과 연포교 사이의 복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 기간 중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은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및 17개 동을 대상으로 올 한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고, 11월 29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는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의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6건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의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1월 29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민수)에서 심사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강진우 의원의 1인으로부터 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와 청사 시설관리 소규모 공사비 등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단 초청공연지원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 발의로 3,529억원의 예산안과 69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또한, 지난 13일 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끝으로 무술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예산안(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구청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2019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267회 제2차 정례회가 3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지난 14일 폐회하며 2018년 한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평가 및 공개,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관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 포함 여부에 대해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는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 운영 중인 우리 구 SNS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빙상장의 잦은 공휴일 대관으로 인한 운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용 시기에 따라 대관료에 차등을 두고, 테니스 프로그램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를 확대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선7기 새로운 구정 운영을 위한 변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민선7기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단체장 정책기능 강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사회복지계정은 저소득층 장학사업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구사립 남구 장학회와 유사 중복되고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사회복지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규제 완화로 주민 이용 확대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8.11.19.)된 우리 구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월정수당, 여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박구슬·김근우 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조례안 발의



박구슬 의원



김근우 의원

남구의회 박구슬, 김근우 의원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의원 발의를 통해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구슬 의원(대표발의) 외 5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꾀했다.

김근우 의원(대표발의) 외 8명의 의원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본회의장

- 방청대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문의: 남구의회사무국 ☎(607-6521~6)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강영 의장 제214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부산시 군·군의회의장협의회 대표인,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18일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4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15개 시도대표와 부산시 군·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활동상황 보고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체제 강화 등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남구 신규 공무원들 본회의 방청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된 지난 14일 남구에 새로 발령받은 신규 임용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공무원 「본회의 방청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이강영 의장은 본 교육에 앞서 신규 임용공무원의 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공직자의 길 등에 대한 덕담과 함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이 날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된 본회의장에서 신규 임용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의회 역할에 대한 생생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으로 접했던 지방자치와 의회,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자치행정 직무수행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